

2025년 1/4분기 대외채무는 전년말 대비 증가했으나, 외채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

-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 등으로 대외채무 규모가 전년말 대비 105억불 증가 -
- 외채건전성 지표는 소폭 악화되었으나,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 유지 -

2025년 1/4분기 대외채무는 6,834억불로 전년말(6,729억불) 대비 105억불 증가(+1.6%)하였다.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493억불로 전년말 대비 +28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5,341억불로 전년말 대비 +77억불 증가하였다. 부문별로 구분하면 정부(+95억불) 및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+32억불)의 외채가 증가한 반면, 중앙은행(△8억불), 은행(△13억불)의 외채는 감소하였다.

한편, 대외채권은 1조 513억불을 기록하였으며, 외환보유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말(1조 600억불) 대비 △87억불 감소(△0.8%)하였다.

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,679억불로 전년말(3,871억불) 대비 △192억불 감소(△5.0%)하였다.

한편 2025년 1/4분기 대외채무 증가 사유로는 국고채 등 우리 채권에 대한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투자가 확대(자금 유입)된 영향*이 컸으며,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'24년말 21.8% → '25.1분기 21.9%),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'24년말 35.3% → '25.1분기 36.5%) 등 건전성 지표가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**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
* '25.1분기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 : 9.9조원

** 직전 5개년 평균 : (단기외채/총외채 비중) 26.0% (단기외채/보유액 비율) 37.5%

아울러,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, Liquidity Coverage Ratio)은 2025년 1/4분기 기준 152.9%로 규제 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다만, 글로벌 통상환경 및 자금흐름의 변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금리 움직임 등의 전개양상에 따라 대외 부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,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함께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김희재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 이태윤 (lty703@korea.kr)

참 고

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

구분	2021	2022	2023	2024				2025	전기비 증감
				1/4	2/4	3/4	4/4	1/4	
총 외채(억불)	6,307	6,733	6,773	6,712	6,657	7,050	6,729	6,834	+105
단기외채(억불)	1,651	1,740	1,415	1,411	1,421	1,584	1,465	1,493	+28
장기외채(억불)	4,656	4,993	5,359	5,300	5,236	5,465	5,264	5,341	+77
단기외채/총외채(%)	26.2	25.8	20.9	21.0	21.3	22.5	21.8	21.9	+0.1%p
단기외채/보유액(%)	35.7	41.1	33.7	33.7	34.5	37.7	35.3	36.5	+1.2%p
대외채권(억불)	10,825	10,351	10,350	10,425	10,312	10,725	10,600	10,513	△87
순대외채권(억불)	4,519	3,618	3,577	3,714	3,655	3,676	3,871	3,679	△192

※ 통계 출처: 2025년 1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5.5.28.)